



創



刊

蔚山金氏大宗會

- 名譽會長：金相駿
 - 名譽會長：金兌奎
 - 名譽會長：金冠洙
 - 名譽會長：金老洙
 - 會長：金達洙
 - 首席副會長：金煥奎
 - 서울地域宗親會長：金星洙
 - 釜山地域宗親會長：金信教
 - 光州地域宗親會長：金鎮云
 - 大田地域宗親會長：金鳳柱
 - 울산(A)地域宗親會長：金漢達
 - 울산(B)地域宗親會長：金常雄
 - 晉州地域宗親會長：金再教
 - 全州地域宗親會長：金成洙
 - 光陽地域宗親會長：金炯培
 - 木浦地域宗親會長：金定祥
 - 長城地域宗親會長：金永采
 - 益山地域宗親會長：金炳桐
 - 南原地域宗親會長：金南洙
 - 井邑地域宗親會長：金永根
 - 高敞地域宗親會長：金相白
 - 扶安地域宗親會長：金椅中
 - 事務總長：金相燁
 - 事務局長：金相老
- 電話番號：(02)-362-9650

蔚山金氏文正公大宗中

都有司 金英
副都有司 宅洙
總務 鎮雄
炳郁

檀紀 4335年 (西紀 2002) 12月 10日 發刊

創刊號

筆巖書院

山仰會報

◇ 目次 ◇

- | | |
|----------------|-------------|
| 1...會長 創刊辭 | 8...山仰會 沿革 |
| 2...院長 祝辭 | 9...山仰契 回顧 |
| 3...光州鄉校典校 祝辭 | 10...山仰會 會則 |
| 4...長城鄉校典校 祝辭 | 11...任員名單 |
| 5...文正公派都有司 祝辭 | 12...會員住所錄 |
| 6...河西先生年譜 | 13...誠金接受內譯 |
| 7...山仰칼럼-道와 文 | 題字 綠洋 朴景來 |



필암서원 전경

(515-812) 全南 長城郡 黃龍面 筆岩里 377, Tel: 061-394-0833
(501-050) 光州광역시 동구 대의동 57-5 대동문화 內 (Tel: 062-233-1313)

發行人：山仰會長 安晉吾

筆巖書院 山仰會

山仰會報 창간에 즈음하여...

安晋吾(본회회장)

山仰會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1년 8월 22일 山仰會가 재발족되고 이제 山仰會報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筆巖書院 山仰會는 반세기의 역사를 지닌 山仰契(1953년 창립)의 정신을 이어 재출발한 모임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산양회는 과거의 書院文化내지 선비문화를 現代化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書院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서원의 祠宇에 先賢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학사들이 서원에 모여 學問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이른바 尊賢과 養士 두 가지가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儒敎의 가르침인 '修己治人'의 道를 가지고 말한다면 선비들은 서원에 配享된 선현을 받들어 모시며 자신의 人格을 도야하는 '修己'의 공부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향촌사회의 풍속을 교화하며 국가 사회의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治人'의 실천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필암서원에 배향된 河西 金麟厚선생(1510~1560)은 우리 나라 18賢의 한 분으로, 선생의 學問과 操行과 節義와 文章은 탁월하여 따를 수 없고 (安邦俊의 「隱峯全書」 권4 竹川朴先生行狀), 道學과 節義와 文章을 겸비한 先哲이십니다.(尤庵 宋時烈의 河西先生 神道碑銘). 따라서 오늘의 山仰會가 가야 할 길은 河

西선생의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익히고, 나아가 先哲들의 사상과 행적을 배워서 그것을 현대생활에 맞게 실천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山仰會가 재출발한 의미가 되새기면서 이렇게 自問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선철들이 이루어 놓은 서원문화 내지 선비문화를 현대적으로 具現할 뜻을 확고하게 세우고 있는가(立志)? 그리고 그러한 뜻을 펼칠 수 있는 공부와 실천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踐履)?

과거 先哲들의 학문과 생활은 근원적으로 유교의 修己治人의 가르침을 시대에 따라 傳承하고 再現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선철들은 훌륭한 인격(君子)을 이루기 위한 자기 수양(修己)과 함께 그것을 바탕으로 齊家 治國 平天下(治人)하는 이상을 그 시대에 알맞게 실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철들의 정신과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은 꾸준한 자기 수양으로 훌륭한 人格을 이루며(修己), 그것으로써 가족과 국가와 민족, 나아가 지구상의 전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데(治人)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훌륭한 인격과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소박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孔子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仁' 또는 '忠恕'를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論語」에 보면 孔夫子의 일관된 인간

의 道는 仁이요, 이에 대한 曾子의 설명은 忠恕입니다. 이 仁 또는 忠恕의 실천에 대한 「논어」의 가르침 중에서 두 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① 己所不欲, 勿施於人. (衛靈公편,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②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雍也편, 자기가 서고자하면 남도 서게 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 남도 이루게 하라)

‘己所不欲’은 바라지 않고 싫어하는 것으로서, ①은 남을 괴롭히거나 슬프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따위의 言行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己欲立과 己欲達’은 하고싶고 바라는 것으로서, ②는 남을 돕고 사랑하며 남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는 言行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보면 한편으로 남을 불행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며, 또 한편으로 나의 행복과 함께 남의 행복도 도모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활은 물질생활의 풍요로움만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오늘날과 같이 物質至上의 가치관으로 얼룩진 사회를 고도의 정신문화가 주도하는 사회로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山仰會員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류사회를 인간답게 살수있는 평화로운 사회로 바꾸기 위한 變革運動에 앞장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변혁운동에 儒林이 앞장서기 위해서 나는 ‘忠恕’의 실천운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한 忠恕의 실천은 곧 인간의 도덕성에 근거한 인간가치의 실현으로서, 그것은 유교에서 지향하는 바 ‘修己以安人’하는 理想을 실현함이요, 또한 선철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서원문화 내지 선비문화의 현대적 具現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 山仰會報의 간행을 계기로 ‘以文會友 하고 以友輔仁’하는 공부와 실천이 세차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河西先生の 詩二首-

◎ 또 앞장의 뜻을 넓히다

又廣前章之意(世稱三人詩)

사람이 사람의 사람됨을 모르면은
사람 구실 못하니 이 어찌 사람이리
사람마다 사람되는 도를 알 것 같으면
성인과 우인이 딴 사람 아니라고

人不知人所以人 人不能人豈是人
人人若會爲人道 聖人愚人非異人

◎ 문인에게 보이다

示門人

천지라 그 중간에 두 사람이 계시나니
중니가 원기라면 자양은 참이로세
마음 같았혀 부디 딴 길로 가지 말고
늪어빠진 이 한 몸을 흐뭇케 하여다오

天地中間有二人 仲尼元氣紫陽眞
潛心勿向他岐惑 慰此摧頽一病身

價値傳達은 教育의 核心

筆岩書院長 高亨坤

河西先生の 道學과 節義를 존승해 온 山仰契의 傳統을 이어받아 새롭게 출발한 山仰會는 여러차례 講會를 여는 등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西先生の 道學과 節義를 배우고 실천한 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에 山仰會報를 創刊한다고 하니 실로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河西先生の 享祀를 모시고 그 學問과 精神을 교육하는 筆岩書院의 院長으로서 山仰會報의 創刊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高山仰止란 泰山처럼 고결한 人格을 지닌 사람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山仰會란 河西先生の 學問과 節義와 人品을 崇仰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河西先生の 고결한 人品만을 崇仰하는 일에 너무 치우친다면 儒學이 아니라 儒敎라는 宗教가 되어버릴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가 河西先生을 崇仰하는 것은 先生の 學問과 精神을 계승하고 教育하자는 데에 그 참뜻이 있습니다. 教育의 핵심은 價値를 傳達하는 데에 있습니다. 價値란 우리의 몸 에 배어들고 精神의 일부가 되지 않는 한 人生을 이끌어갈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市場經濟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오늘 우리의 教育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知識과 情報과 技術을 가르치는데 급급할 뿐 人生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價値를 가르치는데 소홀하였습니다.

즉 네 가지 기본도덕인 智慧와 勇氣와 節制와 正義를 教育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대의 임무는 形而上學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면에서 河西先生の 정신을 배우고 教育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萬物의 本性을 성취시켜 天地에 참여함 이어, 어찌 自己만 完成하리오, 天地正位 萬物의 本性을 성취시켜 天地에 참여함이며, 어찌 自己만 完成하리오, 天地正位 萬物生育의 극진한 功을 이룸이며, 이 바로 聖人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成己成物의 정신, 先生の 道學이 集約된 天命圖에서 中和를 주장하신 것은 卓見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현대의 생태학과도 일치하는 사상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없지만, 사람들의 정신에 目的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정신에 변화가 일어나면 현실의 행동도 변할 것입니다. 儒敎도 기독교처럼 주일마다 지속적으로 教育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정신 教育에 힘써야 할것입니다.

高山仰止가 無窮하길...

光州鄉校 典校 吳仁均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서구의 物質文明의 영향으로 物質萬能의 퇴폐 風潮가 蔓延되어 倫理道德은 땅에 떨어지고 人間關係는 날로 解弛되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가정윤리마저 파괴되어가고 있는 현실 앞에 가슴 아픔을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小學題辭의 한 구절을 되새겨 보고 人間本然의 뉘그러한 본성을 찾고자 합니다.

元亨利貞은 天道之常이요 仁義禮智는 人性之綱이니라. 凡此厥初에는 無有不善하여 謹然四端이 隨感而見이니라. 愛親敬兄과 忠君悌長이 是曰秉彝라 有順無彊이니라

元亨利貞은 하늘의 변함없는 法度天理이고 仁義禮智는 사람의 성품의 根本的인 德性이다. 대저 이 인의예지는 그 근본이 다 착한 것들이어서 감동함에 따라서 네가지 성품이 왕성하게 나타난다.(惻隱, 羞惡, 辭讓, 是非)

父母를 사랑하여 孝道로 섬기고兄을 공경하여 우애를 지키고 또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이를 사람이 지닌 뉘그러한 성품이라 하거니와 이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상 題辭를 비롯하여 小學을 우리 儒林들은 다 배웠을 것이나 實踐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우리 모두 다 함께 自省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河西선생께서는 王朝以來 四百年來 第一人으로 儒學을 이끌어오시고 君臣의 義를 다하였으며, 또한父子之倫, 夫婦之分別을 다하신 百世의 師表이십니다. 일찍이 正祖大王께서는 河西의 道學은 위로는 程子와 朱子의 倡明한 緒統을 꿰뚫어 보았고 아래로는 退溪와 栗谷의 도학을 열어준 공이 있다(上窺程子朱子倡明之緒 下啓 文純 文成 開發之功)라고 하였고 또 河西의 先行後知와 直內方外의 공부는 실로 우리 東

方에서 第一人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退溪先生은 나의 벗으로는 오직 河西一人이라고 하였는가 하면 그 道學은 짝할만한 이가 없다고 하였고, 栗谷先生은 光風霽月이요 清水芙蓉이라고 하였으며 尤庵先生은 道學 節義 文章을 兼備한 분으로 는 오직 河西先生뿐이라고 하였습니다.

河西先生은 學通天人하고 義盡君臣이셨으며 出處語默에 卓然히 左海儒賢의 最上으로서 崇仰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後學으로서 가다듬고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누가 있어 泰山北斗와 같이 우러르며, 祖上같이 恭敬하리오.

先生의 院宇가 長城 筆巖에 모셔져 있으나 中間兵燹에 의하여 書冊什物이 소실되어 十分之一도 남지 않아 院中章甫들이 慨然히 일어나 追補할 것을 謀議하였으나 位田見奪로 그 실현을 보지 못하였으며 域中 慕賢衛道之士들이 捐義輸金하여 萬分之一이라도 修補하여오던 중 지난 1953년 癸巳 八月 安主容, 邊東曄, 金度中, 權純命, 柳永善, 朴厦柱 등 二十餘諸彦이 齊聲發起하여 謀議好德의 君子들이 桴鼓同聲으로 山仰契를 創立하여 運營해왔습니다.

6.25의 白虎之亂을 겪고 急激한 西歐風潮에 휩쓸린 틈바구니에서 山仰契 發起精神이 점차 解弛되어 버렸으나 다행히 지난 2001년 辛巳 8월 22일 安晉吾 會長을 비롯한 現任員과 地域章甫들의 悲壯한 覺悟로 再發起하여 山仰會로 復元한 이래 盛況裡에 運營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金興植 長城郡守님은 先賢에 대한 至極한 崇慕精神으로 筆巖書院 聖域化 事業에 誠力을 다하고 있습니다. 莫大한 國庫支援과 郡費負擔으로 聖域化 大役事를 착착 進行하고 있음은 郡守님의 탁월한 行政力과 남다른 崇慕精神이 아닐 수 없으며, 이와 더불어 금번 山仰會의 會報를 創刊하게 됨을 진심으로 祝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筆巖書院은 聖學修鍊의 道場으로 永久히 保存發展되어야 하며, 또한 山仰會가 이 會報를 통하여 先生의 學問과 道德을 온 천하에 퍼내고 온 인류에 尊慕의 봄이 일어나 與天地 無窮發展 있으시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2002. 11. 11

長城鄉校典校 奇梔舒

筆巖書院 山仰會 會報創刊에 즈음하여 祝辭를 드리게 된 것을 더 없는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筆巖書院은 文正公 河西金先生을 主享하고 鼓岩梁先生을 配享한 先正書院이다.

先生의 道學, 節義, 文章, 名筆은 일찍이 先賢의 徵評이 있어 後生末學이 再論할 必要가 없거니와, 그 重要的 例를 들면 栗谷의 資品論과 松江의 出處頌과 尤菴의 兼有銘과 正祖大王의 道統觀에서 엿 볼 수 있다.

筆巖書院이 創建된 지 近四百餘年에 春風秋雨 그 歷史는 悠久하여도 後學의 尊仰은 不變하여 年前에 山仰會가 發足되었다.

每年 春秋로 講會를 召集하여 先生의 道學을 講論하고 節義를 崇慕하고 文章을 修鍊하게 되니 이 얼마나 多幸한 일입니까?

孔門弟子에 惟有七十子之說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합니다.

昨今 禮義가 말살되고 倫綱이 頽廢하여 父不父 子不子 社會惡의 斷面을 理性을 갖춘 사람으로서는 開口할 수 없게 되어 此所謂 亂極思治 願天生聖人の 時期가 아닌가 합니다.

願컨대 우리 山仰會 여러분들은 더욱 學問을 講論하고 義理를 崇尚하며 나아가 河西先生께서 남기신 儒脈을 繼承 發展시켜 國中에서 우리 山仰會가 永遠하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합니다.

文正公派 都有司 金 英

우리 民族精神의 基幹을 이루는 思想中の 하나가 儒敎倫理 사상이며 그 根本은 人本主義요 人間主義입니다. 근세말엽부터 西洋의 個人主義 사상이 그들의 政治的 經濟的 확장주의와 더불어 분별없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지금 우리의 價値 의식은 혼돈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先賢을 尊慕하고 儒敎의 傳統과 儒論의 正道를 지킴으로써 우리 것을 지키는데 뜻을 같이하신 儒林들이 河西先正을 百世의 師宗으로 崇仰하고 筆巖書院을 聖學의 道場으로서 제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召命感을 가지시고, 그 求心의인 역할을 담당할 山仰會를 活性化하기 위하여 盡力하시는데 대하여 河西後孫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敬意를 표합니다.

더불어 付託드리고자 하는 바는 여기 참여하시는 士林들께서는 省察力行하시어 行實이 敦篤하고 學問에 있어서도 蘊奧한 경지에 있는 분들이시니 後進薰陶에도 恪別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筆巖書院이 斯文探究 본래의 구실을 되찾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社會變化를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發展도 摸索되어 젊은세대의 많은 呼應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또한 이번 山仰會 事業의 일환으로 會報를 發刊하여 널리 山仰會의 理念과 사업을 弘報하려는 계획에 대하여도 크게 讚辭를 드리며 이 사람이 그 會報에 祝刊辭를 쓰게 된 것을 대단히 光榮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山仰會의 앞날에 榮耀있길 衷心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河西先生 연보〉

1510년 (중종 5) 1세

○7월 19일 전라도 장성현(長城縣)대맥동(大麥洞) 고향 집에서 출생

1515년 (중종 10) 6세

○上元夕詩와 詠天詩를 지었음

1517년 (중종 12) 8세

○호남관찰사 조원기(趙元紀)와 더불어 연구(聯句)를 지음.

1518년 (중종 13) 9세

○복재(服齋)기존(奇遵)이 고향에 내려왔다가 선생을 만나보고는 크게 칭찬하며 장차 世子臣이 될 것이라고 하고 붓 한 자루를 선물로 줌. 선생은 이 붓을 평생 간직함.

1519년 (중종 14) 10세

○호남관찰사로 와 있던 모재(慕齋)김안국(金安國)에게 『소학(小學)』을 배움. 이 해에 기묘사화가 일어남.

1523년 (중종 18) 14세

○현감 윤임형(尹任衡)의 따님인 驪興尹氏를 아내로 맞음.

1527년 (중종 22) 18세

○기묘사화 때 동복(同福)에 유배와 있던 신재(新齋)최산두(崔山斗)를 찾아가 뵈고 강학함.

1528년 (중조 23) 19세

○성균관에 유학함. 당시 이행(李荇)이 문형(文衡)으로 있었는데, 성균관 시험에서 「칠석부(七夕賦)」로 장원을 차지함. 이글은 당시 회자되었음.

1531년 (중종 26) 22세

○성균관 사마시에 합격함. 대곡(大谷)성운(成運), 화담(花潭)서경덕(徐敬德), 휴암(休菴)백인걸(白仁傑), 임당(林唐)정유길(鄭惟吉) 등의 명사(名士)가 동방(同榜)임.

1533년 (중종 28) 24세

○성균관에서 퇴계 이황과 더불어 강학함.

1535년 (중종 30) 26세

○고향에 내려옴.

1536년 (중종 31) 27세

○다시 성균관에 유학함.

1540년 (중종 35) 31세

○별시 문과(別試文科) 병과(丙科) 제4명에 급제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임명됨.

1541년 (중종 36) 32세

○여름4월에 사가독서(賜暇讀書)함. 이때 최연(崔演), 송기수(宋麒壽), 이황(李滉), 임형수(林亨秀), 김주(金澍), 정유길(鄭惟吉) 등이 함께 뵈었는데, 더불어 계(契)를 닦고 이름을 '호당수계록'(湖堂修契錄)이라 함.

○10월에 홍문관 정자(正字)에 임명됨.

1542년 (중종 37) 33세

○홍문관 저작(著作)에 임명됨.

1543년 (중종 38) 34세

○4월에 홍문관 박사 겸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설서(說書)로 임명됨. 당시세자인 인종에게서『묵죽도(墨竹圖)』를 하사받고 그림에 제시(題詩)함. ○6월에 홍문관 부수찬(副修撰)으로 임명됨. 차자(箴子)를 올려 시사(時事)를 말하고 기묘제현(己卯諸賢)의 억울함을 논변함.

○8월에 말미를 청원하여 귀근(歸覲)함. 선생은 시사(時事)가 어지러울 것을 미리 알고물러난 것임. 퇴계 선생이 시를 지어 송별함.

○12월에 고향 인근의 옥과(玉果)현감에 임명되고, 춘추관(春秋館)을 겸함.

1544년 (중종 39) 35세

○11월에 중종 승하.

1545년 (인종 1) 36세

○4월에 제술관(製述官)으로 부름을 받고 나아갔다가 사화(士禍)의 기미를 알고 곧 임소(任所)로 돌아옴.

○인종의 쇠약함을 보고 藥院의 탕제 조제에 동참하기를 청했으나 거부당함.

○7월에 인종이 승하하자 칭병(稱病)하여사임하고 귀향함.

1546년 (명종 1) 37세

○을사년 이래 선생은 매년 7월 초하룻날이면 집 앞의 난산(卵山)에 올라 밤새 통곡했는데, 종신토록 폐하지 않았다고 함.

○이 즈음에 시「유소사(有所思)」를 지어 인종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읊음.

○여름 7월에 효경간오발(孝經刊誤跋)을 지음.

1547년 (명종 2) 38세

○봄에 성균관 전적(典籍)으로, 가을에 공조 정랑(工曹正郎)으로 임명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음.
○示門人詩를 지음
1548년 (명종 3) 39세
○순창(淳昌) 점암촌(點巖村)에 우거하면서 훈몽제를 짓고 제자들과 강학함.
1549년 (명종 4) 40세
○천명도(天命圖)를 지음
○「대학강의발(大學講義跋)」을 지음. 성균관 전적으로 춘추 2회임명 되었으나, 나가지 않음 부친상을 당함.
1551년 (명종 6) 42세
○모친상을 당함.
1553년 (명종 8) 44세
○홍문관 교리(校理)에 임명되어 부름에 응해 길을 떠나 가다가 중도에서 병을 핑계하고 돌아옴.
1554년 (명종 9) 45세
○성균관 직강(直講)에 임명되었으나 글을 올려 나가지 아니함.
○자연가(自然歌)등 지음.
1556년 (명종 11) 47세
○서경덕의 「독역시(讀易詩)」에 차운(次韻)함.
1557년 (명종 12) 48세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과 서명사천도(西名事天圖)를 지음.
1558년 (명종 13) 49세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과 「태극도설(太極圖說)」을 강론함.
1559년 (명종 14) 50세
○당시 일재(一齋) 이항(李恒)은 이른바 태극음양일물설(太極陰陽一物說)을 펼쳤는데, 선생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편지로 논했음.
○겨울에 기대승과 더불어 사단칠정(四端七情)의 설을 강론함. 기대승은 퇴계와 사칠논변(四七論辯)을 벌일 때 선생의 견해를 많이 참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명(明) 나라의 성리학자 정암(整庵) 나흠순(羅欽順)이 인심(人心)은 정(情)이요, 도심(道心)은 성(性)이라 한 설을 비판하고, 나흠순을 지지한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이 잘못된 것임을 말함.
1560년 (명종 15) 51세

○정월 16일에 정침(正寢)에서 별세함.
1561년 (명종 16) 사후(死後) 1년
○문인 양자징(梁子澂)이 가장(家狀)을 지음.
1564년 (명종 19) 사후 4년
○옥과 고을 선비들이 선생을 추모하여 영귀정사(詠歸亭祠)를 건립함.
1570년 (선조 3) 사후 10년
○순창 고을선비들이 화산사(華山祠)를 건립함.
1590년 (선조 23) 사후 30년
○호남의 선비들이 장성 기산에 서원을 건립함.
1659년 (효종 10) 사후 99년
○필암서원(筆巖書院)이라 사액(賜額)됨.
1662년 (현종 3) 사후 102년
○필암서원선액, 사제(筆巖書院宣額, 賜祭)
○남원선비들이 노봉서원(露峯書院) 건립.
1668년 (현종 9) 사후 108년
○증자헌대부이조판서 겸 지경연 의금부춘추관 성균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오위도총부도총관 세자좌빈객(贈資憲大夫吏曹判書 兼 知經筵 義禁府春秋館 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 藝文館 大提學 五衛都摠府都摠管 世子左賓客)을 특증(特贈)함.
1669년 (현종 10) 사후 109년
○증시문정(贈諡文靖) 함.
1672년 (현종 13) 사후 112년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가 행장을 지음.
1675년 (숙종 1) 사후 115년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이 묘표(墓表)를 지음.
1682년 (숙종 8) 사후 122년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지음.
1777년 (정조 1) 사후 217년
○본암(本庵) 김중후(金鍾厚)가 묘지명을 지음.
1786년 (정조 10) 사후 226년
○어제사제문을 좌부승지에게 보내어 치제함.
1796년 (정조 20) 사후 236년
○11. 6 문묘(文廟)에 승배(陞配)됨.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겸령경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상감사(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觀象監事)를 가증(加贈)하고 명부조(命不祧)함.
○諡號文靖을 文正으로 改諡함.

道와 文

吳鍾逸(전주대학교 교수)

공자가 광 땅에서 곤욕을 당하였던 일이 있었다. 그곳에 양호라는 못된 사람이 있었는데 공자의 생김새가 그와 비슷하다고 하여 양호로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 양값을 하려고 에워쌌기 때문이었다.

이때 공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하기를, “문왕이 이미 돌아갔으니, 文이 나에게 있지 않는다. 하늘이 장차 이 문을 잃게 하려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이 문을 얻지 못하게 하였겠거니와 하늘이 이 문을 잃지 않게 하였으니,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던 것이다. 이는 문왕의 문을 공자 자신이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에 찬 단언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천도를 계승하고 있다는 확신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자는 왜 문왕의 문을 계승하였다고 하였던 것일까.

주자는 이 文에 대한 뜻을 주석하면서 “문이란 도가 나타난 것을 말하는데 예악이나 제도 같은 것이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문왕은 처음으로 도를 실현한 인물이며 공자는 그 도를 계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글을 가리켜 문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때의 문이란 도를 기록하는 글이라는 뜻이며, 장이란 법칙으로서 도를 기록하는 그 내용이 도의 법칙과 조금도 다름없이 나타나 있는 것을 문장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말이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말하는 것이며 글이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도를 실어야한다는 옛 선현들의 말씀이 참다운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도는 말로써 표현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질서로써 실현되는 것이니 그것이 오류이다.

오류이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윤리이지만 오류가 발현되는 데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믿기 때문이며 선한 본성의 실체가 仁義禮智信의 오상이다. 오상의 발현이 오류이며 오류의 정신을 제도로 만든 것을 典章制度라 부른다. 典章制度라고 할 때의 장이란 바로 천도의 법칙으로서의 뜻을 갖는 것이다.

典章이란 典이 章으로 나타난다는 뜻인데, 典이란 인간의 본성에 갖추어진 법칙으로서의 오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전의 법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문장이라고 할 때의 장은 천도가 글로 표현되는 것이며 전장의 장은 천도가 문물과 제도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장과 전장은 모두가 인륜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인륜의 실천은 오류으로 정립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천도의 문은 문장으로, 오전의 윤리는 오류으로, 오전의 법칙은 전장제도로 확립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니, 천도의 깊고 그윽한 뜻은 인간에게 그만큼의 커다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였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天道가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 있다면 그것은 글자 그대로 오장육부처럼 하나의 생리적인 보관 창고나 다름이 없게 될 것이므로 천도를 밝히기 위하여 이를 글로 표현하고 행동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은 정당하고 옳바르기 때문에 이를 義라고 한다. 천도는 하늘에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공경하는 마음을 간직하여야 하는 것이며, 천도의 실현은 옳바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다. 의로운 행동은 어느 경우에도 그 법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므로 법칙 그대로 나타나는 의를 節義라고 한다.

절의라고 할 때, 절이란 굳은 절개로서 천도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변하지 않는 것이다. 흔히 정 포은을 가리켜 절의를 실천한 사람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옳바름을 자신의 신념으로 여기고 이를 그대로 실천하였기 때문에 節義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세조 때 사육신의 행위를 충절이라고 말하는 것도 충에 대한 신념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붙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문이란 근본적으로는 선을 밝히려는 의지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며 그 선의 실체는 하늘이며 하늘의 뜻은 천도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본다면 학문을 갈고 닦는 것은 천도의 지선한 의미를 본 받고 이를 실현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여 보면 우리가 인간의 행동이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학문인 도학은 어떠한가. 그 도를 옳바른 문장으로 표현함은 어떠하였는가.

이를 행동으로 실천함은 어떠하였는가 하는 기준으로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천도를 인간의 가치와 질서로서 얼마나 옳바로 실천하려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너무나 엄숙한 것이라 할 것이며, 나아가서 또한 이보다 깊은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 학문이 도학 문장 절의로써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선을 추구하는 학문의 진실함과, 천도를 실현하고자하는 의지와, 이를 그대로 실천하는 정신이 일관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가로서 그 인물을 형상하는 것 자체가 지극한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서 선생이 돌아가자 안방준 선생은 “하서 선생의 학문 도덕 절의 문장은 너무나 우뚝하여 거기에 미치어 갈 수 없는 분이다”(하서집 서술)라고 평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천도를 실천하려는 의지로써 이를 배우고 천도의 법칙에 어김이 없이 글로써 표현하고 천도를 실현하려는 진실한 신념은 누구도 이를 따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학과 문장과 절의는, 천도와 인도, 본성과 그 실천에 대한 본말과 체용이 일치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덕목으로서 인간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한 인간에 대한 지극한 예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하서 선생에 대한 안방준 선생의 이러한 서술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또한 그 말에 깃들여 있는 깊은 뜻을 옳바로 이해하여야, 그 진실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 筆巖書院 山仰會 沿革 및 活動事項 …

선정 하서 김인후 선생의 향사 서원인 필암서원에서 광복이후 혼란기에 춘추향사가 어렵게 되어 1953년(계사)8월에 당시 원임 朴鳳求, 金英中, 邊時淵, 유학자 安圭容, 奇宇采, 제씨 등 26인이 山仰契를 발기하여 전국의 유림이 高山仰止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모임을 결성하여 존현위도의 정신으로 춘추향사를 봉행하여 왔음.

당시 발기인: 安圭容, 奇宇采, 金圭稷, 奇儀鎭, 金天奎, 金仁中, 邊東曄, 梁會喆, 柳春錫
李宅奎, 金度中, 李鍾坤, 金榮洙, 朴鳳求, 金俊植, 沈權淳, 權純命, 盧軫永
柳永善, 鄭泰冕, 金漢中, 金從洙, 金黃中, 金堯元, 朴廈柱, 邊時淵 26명.

근래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발전시켜 선양하여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여 산양계 재발기 준비위원회(위원장 安晉吾)를 구성하여 高亨坤 필암서원 원장을 비롯한 서원집강, 崔昌圭 성균관장을 비롯한 전국의 유림 230여명이 2001. 8. 22일 필암서원에서 모임을 갖고 山仰會로 개칭하여 재발기 하였던 바 그후 활동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2001. 8. 22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생애와 사상” 주제아래 安晉吾 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0.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우암선생이 본 하서선생” 주제 아래 趙鍾業 충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2. 22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 주제 아래 金基鉉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 3.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인종승하와 하서의 절의” 주제 아래 金鎭雄씨(서울대 공대졸, 부산거주, 문정공파 부도유사)의 강회.
- 2002. 8.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씨(서원 집강)가 번역 봉독.
- 2002. 9. 26일 秋享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천명사상”의 주제 아래 尹絲淳 고려대 명예교수의 강회를 갖는 등 매회 근 300명의 유림이 참석하여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하는데 기여하였고,
- 2002. 12. 10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제1호)를 발행 配布하여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山仰契 回顧

邊 時 淵(韓國古文研究會長)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선현을 숭모하는 書院 祠宇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을 오히려 폐단시하여 興宣大院君 執政初에 賜額與否에 관계없이 모조리 毀撤하고 다만 文廟配享이 되신 선현과 그 외에 특수한 서원과 사우를 합쳐서 47개 院 祠만이 존속케 하였다. 광복 전후를 기하여 대다수 복원이 되었는데 혹은 자손의 血誠 또는 당국의 보조에 의존하였고 미확철 서원은 많은 位土가 농지 분배에 편입되어 어려운 실정에 처하였다.

長城의 筆巖書院은 先正 6賢 대표 서원으로 훼손없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는 625동란이 겹쳐 설상가상격이 되었었다. 625 중에는 享祀를 闕享하고 수복후에도 신묘년(1951) 春享은 闕하고 秋享부터 復享하였는데 夜享하던 전례를 晝享으로 바꿨으니 야간에는 산적들이 출몰하기 때문에 燈火를 사용치 못한 까닭이었다. 행사시에는 경찰서장이 初獻官을 亞獻 이하 모든 祭官도 유가족동지회나 다른 애국단체원들이 맡아서 행사하였다. 행사후에 서장 金成道씨가 약간의 성금이 있었고 임진년(1952) 춘향 추향 때에 또 다소의 성금이 있었는데 계사(1953) 춘향 儒會時에 이 금액의 처리문제를 논의하였는 바 陽齋 權純命씨는 이 금액은 契金으로 하고 契名은 “詩經”에 “高山仰止”의 뜻을 인용하여 山仰契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奇宇采, 金天奎, 金圭稷, 金度中 諸氏의 합의를 얻어 陽齋에게 序文을 受하였다. 동년 추향에 晦峯 安圭容씨가 초헌이 되었었는데 산양계의 대확장을 發論하여 陽齋所作 山仰契發

文으로 全道內에 發通하였는데 發文人은 安圭容 奇宇采 金圭稷 奇儀鎮 金天奎 金仁中 邊東曄 梁會喆 柳春錫 李宅奎 金度中 李鍾坤 金榮洙 朴鳳求 金俊植 沈權淳 權純命 盧軫永 柳永善 鄭泰冕 金漢中 金從洙 金黃中 金堯元 朴廈柱 邊時淵 등 26인이었다. 이에 각군에 收單有司를 위촉하여 儒林世家로서 文識과 操行이 있는 인사를 상대로 계원을 모집하였는데 보성 沈權淳 장흥 白南善 고흥 宋秉河 부안 柳尙迪 정읍 金臣鍾 장성 邊鎮昇씨 등의 공로가 最著하였는데 심권순씨는 일시에 68인을 모집하였고 백남선씨는 일시에 33인을 모집하였으니 이는 다 晦峯先生의 영향이 미친 바이니 얼마나 欽服하라!

때 마침 장성에는 文苑編纂事業이 있어 전국 각지 명문가 후예들이 續續不絶하였는데 入長城하면 거의 다 산양계에 入契하였으니 갑인년(1974) 춘향까지 院誌에 등재된 계원이 540명인데 그 중 저명인사는 畿湖에 金潤東 鄭雲翰 李載能 李徽載 姜周鎮 奇世勳 柳時溥 金觀浩 金元中 李圭憲 宋在晟 宋在直 李用聖 鄭然國 宋洛彬, 경상도에 李棟欽 全璣鎮 李普林 閔泳馥 宋壽根 鄭道鉉 李基元 金晋秀 金周惠 金昌祺 鄭瓊錫 權龍鉉, 강원도에 洪鍾凡, 제주도에 高炳五, 그리고 本道人은 전부 언급을 略하였다. 계금은 최하 正租 大一斗代 이상으로 하였는데 二斗 三斗 五斗는 본인의 성의에 일임하였고 또는 형편과 처지를 참작하였다. 一石 이상 出義한 계원은 本孫 老洙 本孫 相海 本孫 榮洙 本孫 炳箕 本孫 相浹 四石 傍孫 德奎 本孫 沅中 貳石半 本孫 鳳洙 本孫 洪洙 本孫 四洙 本孫 次中 本孫 鳳洙二石 本孫 英中 本孫 相興 姜東曦 本孫 仁箕 二石 本孫 炳駿二石 本孫 相植 本孫 相一 二石 李永造 李浩敬 羅重煥 金容濟 梁振錫 金喆會 柳鳳植 李桓 範二石 鄭永鎭 金源宅 崔麒洙 四石

韓複錫 松溪祠 本孫 炳述 李永休 金相一 再出
二石 竹林祠 崔元休 金在洙 金采洙 朴龍柱 安
鳳鎔 金鼎鎬 金京錫 洪正杓 洪性琪 柳大圭 本
孫 駙洙 本孫 老洙 再二十五石 高在麟 李瑬雨
李浩呈二石 邊在準 金鳳洙 再 麥洞 辛元教 本
孫炳大 吳弼善 李啓澤 金黃中再 傍孫堯德 本
孫堯杰 梁宗鎬二石 梁在鶴 梁在萬 梁在土 金
東鎬 김재규 姜是昌再 奇世勳 柳時溥 姜周鎮
本孫 駙洙 本孫 季洙百石 인데 一斗二斗 再次
三次 출의한 계원도 있고 이를 수집하려고 수
십차 출장을 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유세 설득
등 노고가 많았었다.

이 계금이 일시에 모인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여년이 걸렸다. 처음 玉井里에 660평 價還畓
을 買受하여 매년 自耕을 하고 또 830평을 매
입하여 역시 자경을 계속, 수년 후에 연차적으
로 매수된 것이 거의 24斗落이 되었는데 本孫
英中씨의 노고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상 모집 과정에서 유림세가 출신이 아니라
는 이유로 正租 一石을 거절한 사례도 있었으
며 모씨는 계금을 냈는데도 1년간을 보류하였
다가 儒會의 결의로서 최후로 收入하였으니
그러므로 당시의 여론이 자자하였다.

契에는 契長 副契長이 있었으나 名譽而已요,
실무자가 집행하여 春秋 享祀後에 필히 收支
狀況을 보고하였는데 대부분이 서원 享禮와
講會費에 補用되었다.

최근 20년간 활동이 중지되고 老成契員이 차
차 零落하여 斯文維持와 儒道復興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회고컨대 거금 50년전사는
비참하기 말할 수 없었다. 8년간의 세계대전, 7
년 연간의 無前大凶 초근목피로 간신연명하였
고 광복후에는 토지분배 좌우투쟁 625동란을
격어 租一斗가 금싸라기처럼 귀하였다.

이 때에 이 계를 설립하여 우선 서원 유지와
춘추 향사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매년 享祀前
夜에 齊宿所感으로 漢詩를 題詠하고 향사후에
는 一夜를 숙박하면서 필히 강학을 하였고 (邊
禮說-講義) 의리담론 전국적으로 명유들을 초
청하여 祭官을 위촉하되 祭享時에 초중학교
윤리담당교사들과 학생들을 필히 參祭토록 하
였다.

이러함으로 당시 閔泰植 박사 俞致雄 선생은
전국의 모범서원이라 칭하였고 성균관장 朴性
洙로 하여금 당연히 견학이 있어야 하겠다고
역설하였다.

이제 뜻있는 인사들이 奮然發意하여 이 山仰
會를 설립하였으니 兩年間 會同人士가 무려
250여명에 달하였다. 그 취지와 목적은 산양계
와 추호도 다름이 없지만은 세대의 차이가 있
어 문호를 개방하고 계의 명칭을 산양회로 변
경하는 것이었다.

바라건대 우리는 배워야 한다. 첫째, 河西先
生을 배워야 하는데 하서선생의 道學과 節義
와 文章이 兼有而不偏은 如何의 말인지 우선
선생의 문집 중에서 二人詩와 墨竹詩 弘文館
箚子 大學刊誤跋 平泉莊記 등을 세밀히 연구
한다면 선생의 정신 사상을 만의 일이라도 체
득할 것이요 우리나라 선현 중에서 孔朱라고
昌言하기는 오직 선생이시니 선생을 배울려면
은 朱子를 꼭 배워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적
극 매진하여야 하며 허장성세 말만 앞세우지
말고 實地를 주장한다면 다소나마 世教에 도
움이 될까 하여 이상과 같이 두어말 기록하는
바이다.

壬午 小雪節에 黃州 邊時淵 씀

山 仰 會 則

제 1 장 總 則

第1條【名稱】本會의 名稱은 筆岩書院 山仰會라 한다.

第2條【事務室】本會의 事務室은 筆岩書院에 둔다.

第3條【目的】本會의 目的은 河西先生을 百世의 師宗으로 崇仰하고 筆岩書院을 聖學 修練의 道場으로 永久 保存 發展시키며 道學, 節義, 文章을 研究하여 斯道를 繼承 發展시킴에 있다.

第4條【會員資格】學問과 德行을 兼備하고 本會의 目的에 贊同한 人士로 한다.

第5條【入會】

1. 入會는 會員의 推薦을 받아 任員會에서 審議 決定하고 定期總會때 報告한다.
2. 入會費는 任員會에서 決定한다.

제 2 장 任 員

第6條【任員構成】本會의 運營을 위하여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顧問 및 責任研究委員
 - 가. 顧問 若干人(推戴)
 - 나. 責任研究委員 6人(道學 2人, 節義 2人, 文藝 2人)
2. 執行部署
 - 가. 會長 1人
 - 나. 副會長 若干人(常任副會長 포함)
 - 다. 總務 1人
 - 라. 財務 1人
 - 마. 幹事 若干人
3. 監事 2人

第7條【任員의 職能】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諸般業務를 總括하며 各種 會議의 議長이 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常任副會長은 會長 有故時 會長을 代理하며 各分科會議의 議長이 된다.(道學, 節義, 文藝分科)
3. 總務는 本會의 諸般業務를 總括執行한다.
4. 財務는 本會의 財政業務를 擔當한다.
5. 責任 研究委員은 道學, 節義, 文藝 등 各分科의 業務를 主管 推進한다.
6. 幹事는 本會 各部署의 諸般 實務를 擔當한다.
7. 監事는 每年度 末에 本會의 收支 決算 및 事業을 監査하여 報告한다.
8.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고 分科別 事業의 推進에 參與할 수 있다.

第8條【任員選出】

1. 會長과 副會長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하고 總務, 財務, 幹事는 會長이 委囑한다.
2. 各分科의 責任 研究委員은 所屬分科에서 選出하여 회장의 승인을 得한다.
3. 顧問은 總會에서 推戴한다.

第9條【任期】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連任할 수 있다.

제 3 장 財 政

第10條 本會의 財政은 入會金, 年會費, 贊助金, 其他 收益金으로 한다.

第11條 本會의 資金은 金融機關에 會長 名義로 預置하고 通帳은 財務가 保管한다. 但, 任員會의 決議에 따라 會費의 一部를 增殖할 수도 있다.

제 4 장 회 의

第12條【會議】會議는 定期總會, 定期講會, 臨時總會, 分科會, 任員會로 구분한다.

1. 定期總會는 每年 12月中에 개최한다.
2. 定期講會는 春秋 享祀時와 夏冬節期에 개최한다.
3.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分科會에서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4. 分科會는 各 分科別 또는 必要時에 召集하며 分科別課題를 推進한다.
5. 任員會는 必要時 會長이 召集한다.

第13條【議決定足數】各種 會議의 案件은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同으로 議決한다.

第14條【議決事項】

1. 總會에서는 會長 等 任員의 選出과 推戴, 豫算決算에 關한 事項, 會則 改正에 關한 事項本會 運營에 必要한 主要事項을 議決한다.
2. 任員會에서는 本會의 事業計劃의 協議와 執行, 其他 必要한 事項을 議決한다.
3. 各 分科會에서는 分科別 研究 課題를 議決한다.

제 5 장 사 업

第15條【事業】

1. 聖學의 研究 開發과 書院의 聖域化를 위한 事業
2. 道學, 節義, 文藝 分科別 學術研究와 講論, 修練事業
3. 學術發表와 文獻 회보 發刊
4. 會員間의 親睦과 信義를 圖謀하기 위하여 情報 交換과 相扶相助 事業을 誠實히 遵行한다. 但, 事業은 任員會議에서 決定 施行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제 6 장 賞罰, 其他

第16條【表彰】本會의 目的 事業에 貢獻한 人士나 本會의 發展을 위하여 特別히 貢獻한 人士는 表彰한다.

第17條【懲戒】本會의 名譽를 毀損하는 者는 懲戒할 수 있다.

第18條【文書 및 帳簿】

1. 會員 및 任員 名簿
2. 會議錄 및 運營 日誌
3. 金錢出納簿 및 豫算決算書
4. 預金通帳
5. 印章
6. 講論 其他 研究 發表物
7. 其他 必要한 書類

第19條【補則】本會則에 規定하지 않은 事項은 社會常規와 一般慣例에 依한다.

제 7 장 附 則

1. 本會는 筆岩書院에 두고, 筆岩書院 別有司는 當然職 副會長이 된다.
2. 舊 山仰契員은 本會員으로 看做하며, 死亡者는 그 子孫이 承繼한다. 단, 1年 以上 會議 不參時는 會員의 資格을 喪失한다.
3. 入會費는 3萬원 以上으로 하고 年會費는 4萬원으로 한다. 但, 會議時 分納 할 수 있다.
4. 分科會는 各自의 希望에 따라 所屬하여 參與함을 原則으로 한다.
5. 顧問은 學德과 信望이 높은 儒林代表와 文正公 本 孫 代表 若干人으로 構成하되 書院의 院長과 文正公 大宗孫, 門中 都有司는 當然職 顧問으로 推戴한다.
6. 本會則은 辛巳年(2001년) 8月 22日부터 施行한다.

…筆巖書院山仰會 任員…

- 顧問 高亨坤 濟州 筆巖書院院長 前全北大學校總長 서울大 哲學科教授
- 顧問 高云錫 長興 泥隱 前光州鄉校典校 筆巖書院道掌議 062-262-1779
- 顧問 權熙文 安東 澹軒 前長水鄉校典校 筆巖書院執綱
- 顧問 閔祐植 驪興 守菴 月峯書院都有司 前東新大學校財團理事長
- 顧問 柳漢相 文化 東江 成均館顧問 5個祠院院長 筆巖書院執綱 062-529-1197
- 顧問 柳承國 晉州 道源 前成均館大學校 儒學大學長 哲學博士 現學術院會員
- 顧問 李泳福 公州 雲亭 前成均館副館長 現全南鄉校財團理事長 062-372-7070
- 顧問 崔根德 慶州 南岡 前成均館長 哲學博士 02-344-0020 423-1525
- 顧問 崔相玉 全州 裕堂 南和土建株式會社會長 前和順鄉校典校 062-520-1001
- 顧問 崔昌圭 慶州 海史 成均館長 前國會議員 02-3462-4375
- 顧問 金相駿 三養鹽業顧問 前河西紀念會長
- 顧問 金炳桐 前文正公派都有司
- 顧問 金鎮國 文正公 大宗孫
- 顧問 金老洙 前世昌鐵鋼會長
- 顧問 金達洙 蔚山金氏大宗會長
- 顧問 金鍾燮 前全羅北道 儒道會長
- 顧問 金東準 前文正公派都有司
- 顧問 金相鴻 河西先生紀念會 理事長
- 顧問 金英 文正公派 都有司 前木浦大經營大學院長
- 顧問 金貞洙 前全南大教授
- 顧問 金正洙 前蔚山金氏 大宗會 會長
- 顧問 金兌奎 前 國會議員 光州教育大學長
- 顧問(常任) 邊時淵 黃州 汕巖 前筆巖書院掌議 前成均館儒道會總本部會長 061-392-2209
- 顧問(常任) 朴鍾達 忠州 松石 光州鄉校財團理事長 062-262-1779
-
- 會長 安晉吾 竹山 次山 前孔子學會長 現茶山學研究院長 現全南大名譽教授・哲學博士
- 副會長(常任) 金炳勳 蔚山 欽齋 鳳巖書院掌議 前市・郡 農村指導所長 061-393-2645
- 副會長 高永斗 長興 三勉 前株式會社 三勉스텐 會長 忠烈公 褒忠祠都有司 062-674-0007
- 副會長 金容淑 蔚山 素巖 筆巖書院 別有司 成均館儒道會中央委員 011-603-5724
- 副會長 李昆煥 仁川 然哉 大邱廣域市 儒道會長 053-471-3717

副會長 李夏永 紹強 全羅北道 儒道會長

副會長 趙鍾業 漢陽 鶴山 前忠南大學校 人文大學長 現 忠南大名譽教授 尤庵先生南潤祠

都有司 011-9810-6034

總務 金長洙 善山 晨溪 光州鄉校掌議 善山金氏光州壯年會長 062-232-5577 016-622-5577

財務 梁熙澤 南原 平齋 前黃龍農協常務 現長城鄉校掌議 016-9646-5838

事務幹事 金炳三 蔚山 善齋 前 行政公務員 大韓老人會 黃龍面支會長 061-394-0833

總務幹事 曹相烈 昌寧 厚堂 現社團法人大東文化研究會長 湖南大學校 兼任教授

062-233-1313, 016-606-5600

財務幹事 金相元 蔚山 台巖 前 行政公務員 前 바르게살기 長城郡支會 事務局長 061-392-2804

019-618-2804, 019-618-2804

組織幹事 李沂錫 光山 栢軒 前行政公務員 前長城郡山林組合長 061-393-2008

地域幹事 羅天柱 錦城 鳳耕 筆巖書院執綱 061-394-2315

地域幹事 申文秀 高靈 月汀書藝院長 016-627-4427

地域幹事 李世煥 固城 葛川 韓國典禮院全北支院長 063-287-9638, 011-670-7855

監事 金炳槿 蔚山 前教育廳課長 061-373-2599, 011-600-2599

監事 李準泳 慶州 誠軒 前農協專務 漢學者 019-9177-1311

責任研究委員

道學 吳鍾逸 同福 臥龍 全州大學 教授 063-220-2303

朴來鎬 泰仁 蘆江 筆岩書院執綱 061-393-8880

節義 羅俊洙 羅州 石亭 前郡農村指導所長 062-262-6815

金鎮雄 蔚山 晚巖 文正公派 副都有司 051-265-4237

文藝 李炳玪 光山 清下 筆巖書院掌議 061-392-1407

金梓洙 蔚山 光州教大教授 062-673-6395



筆巖書院 山仰會員 住所錄

◎ 서울, 경기, 대구, 부산

〈姓名, 本貫, 雅號, 住所, 電話番號〉

- 李昆煥, 仁川, 然哉, 대구시 남구 이천동
293-9, T. 053-471-3717
- 金泳仲, 蔚山, 又湖,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92-26, T. 02-333-2868
- 高洪錫, 長興, 琴軒,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읍 창현리 경향아파트 101동 103호
T. 031-511-7822, 018-224-7822
- 邊瑠燮, 黃州, 元谷,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9-9, T. 02-3442-0220, 016-342-2288
- 田光弘, 潭陽,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외사
리, T. 031-633-2723, 011-9654-2723
- 金鎭雄, 蔚山, 晚巖,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현대아파트 110-2003, T. 051-265-4237,
011-565-4237
- 宋東憲, 恩津, 石泉, 대전시 동구 용운동
258, T. 042-284-0161
- 金相燁, 蔚山,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 4동
94-28 현대맨션 1동 201호,
T. 02-3481-8436
- 趙鍾業, 漢陽, 鶴山,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새미래아파트 811동 401호, T. 042-825-9981
- 鄭炫桤, 草溪, 素浪, 경북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6번지, T. 054-481-0409
011-555-7991
- 金泰守, 蔚山, 松鹿,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동 270-43 논현빌라 202호, T. 02-362-9650
02-545-4167, 011-673-4167
- 高亨坤, 서울시 필암서원 원장
- 金熙明, 光山, 誠菴, 부산시 해운대구 우일
동 637-4, T. 017-560-4586
- 金在億, 蔚山, 三洋, 서울 종로구 연지동
263, T. 02-740-7012, 011-302-7012

◎ 전북

- 崔四鉉, 全州, 月坡, 순창군 구림면 월정리
691, T. 063-652-9153, 011-9991-9153
- 鄭雲炎, 迎日, 斗下, 전주시 덕진구 진북 2
동 1060-8 현대아파트 1001호
T. 063-272-3900, 018-285-3900
- 金鳳洙, 蔚山,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33-46, T. 063-274-3821
- 劉一鍾, 江陵, 河南, 정주시 상동 283-11
T. 063-535-3497, 011-9923-3497
- 金炳閔, 蔚山, 愚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현대 아파트 102-503, T. 063-223-9729
- 丁熒均, 義城, 春臺,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 376-8 동원당 서예학원,
T. 063-246-9146, 016-622-9146
- 尹柱男, 坡平, 克齋, 김제시 백학동 141-1,
T. 063-546-0850, 016-9899-0851
- 金鍾鶴, 光山, 嶠岩,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T. 063-546-9304
- 申文秀, 高靈, 晚松, 月汀,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53-2 월정서예학원
T. 063-282-4427, 016-627-4427
- 金鍾大, 慶州, 春山,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79-4, 전주 학의 서당 T. 063-286-5698
- 金鍾懷, 慶州, 淸谷, 김제시 성덕면 대석리
대석 T. 063-444-3773, 011-9437-8115
- 李夏永, 全義, 紹強,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16-1, T. 063-282-7608
- 安在格, 順興, 行山,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
동 2가 421-5
T. 063-285-3389, 017-606-3389
- 林東翼, 羅州, 雲湖,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705-6 광진궁전 아파트 7-1201
T. 063-224-6697, 019-489-6697

- 金鍾燮, 蔚山, 中軒,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18 현대아파트 105-206
T. 063-221-4592
- 高南奎, 長興, 秀山, 고창군 신탄면 가평리
T. 063-562-4277
- 金炳櫛, 蔚山, 仁堂, 익산시 중앙동 3가 30 김외과병원, T. 063-855-2321
- 李世煥, 固城, 葛川,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가 393-1 갈천서원
- 金炳權, 蔚山, 光彬,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1가 44-1, T. 041-857-6221~5
011-655-0018, 063-284-0018
- 朴金奎, 익산시 신동 제일 아파트 101동 601호, T. 063-851-5056
- 金錫基, 淸州, 淸史, 전주시 전동 2가 140-12 전라북도 향교재단 이사장
T. 063-564-2302
- 安珍模, 順興, 竹堂, 전북 남원시 이백면 내동 247, T. 063-635-3154
- 楊萬鼎, 南原, 玄谷,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서호아파트 101동 205호
T. 063-288-3646, 063-274-7995
- 金載元, 蔚山,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삼태, T. 063-267-6645
- 權熙文,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 安泰錫,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83-29
- 吳鍾逸, 同福, 臥龍, 전주대학교수
T. 063-220-2303(室)

◎전남지역

- 金圭浩, 慶州, 養浩, 화순군 춘양면 산간리 267, T. 061-372-7253
- 趙鏞敏, 咸安, 雲菴,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마골, T. 062-222-6474, 061-337-8850
- 梁柁, 南原, 省齊, 영광군 법성면 월산리 405
- 白達淳, 水原, 星齋, 장흥군 용산면 상금리 642
- 丁宗杓, 羅州, 慕蓮,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T. 061-363-3715
- 金永鎬, 光山, 春園,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T. 061-362-3564

- 馬洪淑, 長興, 芳原,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 林滿澤, 羅州, 淵齊,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770, T. 061-362-0039, 011-347-1039
- 許津, 陽川, 隱谷, 곡성군 석곡면 당월리 421, T. 061-363-5065
- 金炳椀, 蔚山,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T. 061-382-8619
- 沈在植, 靑松, 擇山, 곡성군 입면 금산리 399, T. 061-362-6127, 011-9604-6127
- 沈雲植, 靑松, 雲齊,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T. 061-382-7847
- 李靈檜, 全州, 肯堂, 영광군 홍농읍 월암리, T. 061-356-7890, 016-657-5353
- 朱奎南, 新安, 忍堂,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T. 061-356-3153, 011-601-2153
- 李根宰, 全州, 전남 여수시 둔덕동 한려주공아파트 106동 1501호, T. 061-653-2382
019-312-5646
- 李泳福, 公州, 雲亭, 전남 화순군 춘양면 석정리 197-16, T. 062-228-9657
- 朴奇鎬, 密陽, 又玄, 전남 화순군 도암면 원천리 T. 061-373-0518
- 梁亨根, 濟州, 春坡, 전남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787, T. 061-382-7138
- 梁仲鎬, 濟州,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379, T. 061-382-7588
- 朴成鎬, 전남 담양군 대전면 덕진
- 朴龍巖, 密城, 誠濟, 전남 영암군 미암면 춘동리, T. 061-473-4606
- 宋在烈, 礪山, 春圃, 전남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 T. 061-833-3937
- 朴文鎬, 密陽, 友堂, 전남 보성군 벌교읍 지동리 1352, T. 061-857-1936
- 吳翼星, 濟州, 顧南,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2리, T. 061-362-8884
- 任根亨, 豐川, 正齋, 전남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507-3
T. 061-382-3215, 016-9676-3216

◎장성

- 金相鶴, 蔚山, 石坡, 장성군 황룡면

- 필암리 1리, T. 061-393-4014
- 李五範, 咸平, 慙庵,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T. 061-394-2412
 - 金炳孝, 蔚山, 東岩,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172, T. 061-393-8248, 016-9810-8248
 - 金炳三, 蔚山, 善齋,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T. 061-394-0833
 - 金洙煥, 金海, 龍岡,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100, T. 061-392-4700, 016-458-4700
 - 金鎔普, 蔚山, 栗亭, 장성군 진원면 울곡리 61, T. 061-392-5222, 019-692-5222
 - 金相杓, 蔚山, 加平, 장성군 진원면 학전리 평촌, T. 061-393-4449, 019-625-5115
 - 林基玉, 兆陽, 南隱, 장성군 남면 월곡리 741, T. 061-392-3602
 - 金麟奎, 蔚山, 栢堂,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011-638-4394
 - 金容益, 蔚山, 東隱,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429, T. 061-392-7621, 019-9160-7621
 - 金南圭, 蔚山, 愚耕,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172
 - 金在洙, 晋州, 貞軒,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115, T. 061-394-2242
 - 奇宇天, 幸州, 松隱堂,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720, T. 061-394-2808
 - 邊東焱, 黃州,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19 011-666-8113
 - 劉載述, 江陵, 蘆松,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T. 061-392-8987
 - 李載洙, 咸平, 鶴圓,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368, T. 061-394-2306
 - 金福源, 商山, 湖隱, 장성군 삼서면 수양리 108, T. 061-394-1969, 011-219-1969
 - 金炳勳, 蔚山, 欽齋,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82-7, T. 061-393-2645, 019-383-2645
 - 張在賢, 仁同,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23-12, T. 061-392-1142, 011-603-9142
 - 劉載善, 江陵, 林阜,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491, T. 061-394-4820, 019-640-4820
 - 邊東銘, 黃州, 虎巖, 장성군 북이면 박산리 405, T. 061-393-1157
 - 邊甲哲, 黃州,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T. 061-393-5204, 019-430-5204
 - 金仁泳, 金海, 春圃, 장성군 남면 덕성리 T. 061-394-3344
 - 金法洙, 光山,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북촌 018-571-5720
 - 宣在奕, 寶城, 笑巖, 장성군 남면 녹진리 338, T. 061-394-3934, 019-9146-3934
 - 金源明, 光山, 雲岩,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333, T. 061-394-2077, 016-609-2077
 - 羅國柱, 錦城, 淸軒,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T. 061-394-2302, 019-394-4699
 - 李沂錫, 光山, 栢軒, 장성군 장성읍 청운 2동 120-11, T. 061-393-2008, 011-627-1856
 - 宋炳植, 礪山, 松林, 장성군 동화면 송계리 300, T. 061-392-6391, 019-9164-5391
 - 李相鏞, 慶州, 碧松, 장성군 동화면 송계리 473, T. 061-392-0436, 017-602-0436
 - 金炳倫, 蔚山, 京巖,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 514, T. 061-392-6950, 011-643-8964
 - 金應烈, 晋州, 漁雲,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80, T. 061-394-1937
 - 邊夏燮, 黃州, 梅河,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42, T. 061-393-1313, 011-9718-2991
 - 金容淳, 光山, 龍汀,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45, T. 061-394-2278, 011-647-2278
 - 李準泳, 慶州, 誠軒,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129-5, T. 061-395-0755, 019-9177-1311
 - 邊凡錫, 黃州, 次菴,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79-38, T. 061-393-2377, 017-601-2377
 - 韓太燮, 淸州, 柳雲,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금형 477, T. 061-394-2175, 017-248-2175
 - 金漢植, 光山, 愼菴,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동계 T. 061-392-7511
 - 金相德, 蔚山,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T. 061-392-7511
 - 梁熙澤, 南原, 平齋,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43, T. 061-393-5874, 016-9646-5838
 - 金相元, 蔚山, 台岩,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973-17 충무 2동 T. 061-392-2804, 019-618-2804
 - 朴來鎬, 泰仁, 蘆江, 장성군 장성읍 충무 2동 970-11, T. 062-232-6353, 061-393-8880
 - 金相基, 蔚山,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남계, T. 062-302-5151, 017-650-5721

- 羅天柱, 錦城, 鳳耕,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T. 061-394-2315
- 孔庚鎬, 曲阜, 皓隱,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332, T. 062-512-1779, 018-610-1877
- 金道中, 蔚山, 中山,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21-1, T. 011-605-9754, 061-393-2227
- 金局泰, 蔚山, 坪軒,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
신평, T. 061-393-1141, 011-615-5595
- 柳在甲, 文化, 森隱,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645, T. 061-394-2131, 016-640-2131
- 朴東熙, 密陽, 松岩,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48, T. 061-394-1313, 016-9340-7276
- 李炳玟, 光山, 淸下, 장성군 장성읍 매화동
1081, T. 061-392-1407
- 金盛洙, 蔚山, 牧井, 장성군 장성읍 청운1동
축협장, T. 061-393-6771, 061-393-2316
- 金炳千, 蔚山, 湖巖,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2리 260-1 T. 061-393-1298
- 朴判湧, 密城, 潘水堂, 장성군 동화면
통안리, T. 063-563-7908, 061-393-7575
- 邊炳淵, 黃州, 强庵,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T. 061-393-1141, 011-615-5595
- 金泳豊, 蔚山, 白松,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임곡부락, T. 062-651-7447, 011-645-7445
- 高光玉, 長興, 牛峰, 장성군 삼서면 우치리
T. 061-394-2079
- 金鍾權, 蔚山,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 高世中, 長興, 松谷,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옥천
- 奇梲舒, 幸州, 門湍,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172번지
T. 061-393-4579, 017-602-4579
- 崔南周, 全州,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25-4
T. 061-393-5598, 018-612-0574
- 金 溱, 蔚山,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630-2
T. 061-394-7774, 017-714-4774
- 柳壽煥, 文化,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218
T. 061-392-8184, 011-604-7975
- 金祥中, 蔚山, 呂古,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
여고, T. 061-394-4709
- 金炳棺, 蔚山,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581
T. 061-393-1913, 016-433-7544

- 奉炳國, 河陰, 友松,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T. 061-394-2309, 011-427-2309

◎광주(동구)

- 奇百變, 幸州, 牛峰, 광주시 동구 산수동
542-16, T. 062-528-0993
- 崔相玉, 全州, 裕堂, 광주시 동구 동명동
58, T. 062-222-1357, 062-527-8818
- 秋三得, 秋溪, 義齋, 광주시 동구 동명동
287-29, T. 062-223-8826
- 安晉吾, 竹山, 次山, 광주시 동구 산수동
463-19, T. 062-512-7475
- 南兌龍, 宜寧, 松泉, 광주시 동구 동명동
102-1, T. 062-227-6703, 227-4904
- 申亨澈, 平山, 立軒, 광주시 동구 학동
세라믹 1동 609, T. 062-672-7008, 227-6286
- 宋澈, 洪州, 海石, 광주시 동구 남동 156-1
T. 062-222-9189, 017-614-9189
- 曹相烈, 昌寧, 厚堂, 광주시 동구 대의동
57-5 T. 062-233-1313 016-606-5600
- 趙炳春, 金堤, 愚溪, 광주시 동구 동명동
200-16, 017-603-4090
- 金相憲, 蔚山, 德齊, 광주시 동구 산수 2동
534-21, T. 062-263-5216, 011-9620-5216
- 李圭珩, 全州, 松坡, 광주시 동구 소태동
573-25, T. 062-223-5480, 222-3130
- 張斗錫, 興德, 海觀, 광주시 동구 지산동
713-58, T. 062-227-9004, 224-6364
- 孔鍊雄, 曲阜, 瑞山, 광주시 동구 계림1동
572-10, T. 062-522-3395, 224-3393
- 金長洙, 善山, 晨溪, 광주시 동구 지산 2동
342-52, T. 062-232-5577, 016-622-5577
- 柳晏重, 文化, 春溪, 광주시 동구 산수 1동
539-31, T. 062-263-6709, 017-618-6709
- 朴景來, 珍原, 錄洋,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99-1 녹양서예원, T. 062-223-2266
- 梁原豪, 濟州, 松軒, 광주시 동구 궁동
38-9 송림서예, T. 062-232-8716, 223-0938
- 양해철, 濟州, 광주시 동구 산수동 84,
광명아파트 101동 203호

- T. 062-062-228-1122, 011-611-9010
- 梁二鎬, 濟州, 광주시 동구 지산동 446-1
해광사진관, T. 062-227-0877, 017-610-0877
 - 梁在斗, 濟州, 石晶, 광주시 동구 산수 1동
560-33, T. 062-223-7477
 - 梁平默, 濟州, 광주시 동구 산수 1동
동진맨션 3-204호
 - 閔祐植, 驪興, 守菴, 광주시 동구 지산동
삼성아파트 3동 1301호, T. 062-228-6767
 - 金鍾灝, 金海, 南松, 광주시 동구 용산동
한국아파트 1509, T. 062-672-7008,
062-234-4407, 016-9345-4407

◎ 광주(서구)

- 曹基元, 昌寧, 東川, 광주시 서구 양동
60-2 금호맨션 2- 111, T. 062-369-8816,
017-603-8816
- 林奉基, 羅州, 晚秋, 광주시 서구 농성동
2동 665-26, T. 062-363-7855, 017-635-7855
- 尹淙根, 驪州, 義齊, 광주시 서구 양동
60-2, 금호맨션 3- 805, T. 062-366-4311,
017-627-7008
- 尹漳鉉, 海南, 一沙, 광주시 서구 금호동
769 모아아파트 104-306, T. 062-373-5356,
016-658-5357
- 姜仲錫, 晉州, 梅亭, 광주시 서구 상무 2동
432-15, T. 062-371-0108, 017-609-0108
- 李啓善, 咸平, 福山, 광주시 서구 화정4동
917-8, T. 062- 228-2106, 374-4190
- 奇世樂, 幸州, 滿齋, 광주시 서구 화정 4동
금호타운104-102
T. 062-375-4348, 011-609-6965
- 吳世圭, 海州, 修岡, 광주시 서구 유촌동
864 버들마을 A 107-601,
T. 062-282-9653, 019-371-6653
- 柳鍾相, 高興, 玄供, 광주시 서구 화정동
신동아 A 103-85
T. 062-365-3287, 011-9865-3930
- 鄭尙允, 光州, 源齋, 광주시 서구 쌍촌동
965- 20, T. 062-372-0889, 011-624-0277

- 金相德, 蔚山, 광주시 서구 쌍촌동 155
현대 아파트 102-602, T. 062-381-7799
- 宋河潤, 礪山, 曉江, 광주시 화정 2동 1072
금호아파트 103동 409호, T. 062-362-9527,
011-642-9525
- 金炳槿, 蔚山, 仁松, 광주시 서구 화정 1동
현대아파트 103-705, T. 062-373-2599,
011-600-2599
- 羅季柱, 錦城, 安石, 광주시 서구 쌍촌동
일신아파트 103-1602, T. 062-381-1510
- 李載英, 咸平, 竹山, 광주시 서구 쌍촌동
1동 328-23

◎ 광주(남구)

- 梁會亨, 濟州, 石俸, 광주시 남구 월산 5동
1012-38, T. 062-367-0080, 017-603-9353
- 金正熙, 淸道, 仁山, 광주시 남구 방림동
540-13, T. 062-676-0305
- 羅性洙, 羅州, 道川, 광주시 남구 월산 4동
907-9
- 吳仁均, 羅州, 鰲山, 광주시 남구 주월 2동
81-2 해태 APT 102-1004, T. 062-672-7008,
011-618-0005
- 金杜洙, 善山, 松隱, 광주시 남구 월산 4동
982-5 T. 062-363-6023
- 安基奉, 順興, 松軒, 광주시 남구 주월동
1149-4, T. 062-672-3369, 011-624-3107
- 李汀圭, 星州, 靑坡, 광주시 남구 월산 2동
902-5, T. 062-363-2535, 011-628-1372
- 梁在東, 濟州, 松雲, 광주시 남구 백운동
451-14, T. 062-225-4757, 671-4199
- 金宜洙, 蔚山, 광주시 남구 양림동 24-22,
T. 062-652-0947, 011-601-7383
- 金容淑, 蔚山, 素巖, 광주시 남구 진월동
풍림 APT 101-608, T. 011-603-5724
- 金鍾會, 金海, 省齋, 광주시 남구 주월 1동
1169-8, T. 062-651-1747, 019-9147-1747
- 宋泰瑞, 礪山, 雪岡, 광주시 남구 서문로
287 진월아파트 2동 404호, T. 062-672-6178
- 朴泰根, 陰城, 西山, 광주시 남구 월산동

- 43-7, T. 062-941-2911, 011-603-1252
- 金勝圭, 蔚山, 광주시 남구 백운동 현대 APT 103-306, T. 062-676-0902, 019-9669-0902
 - 吳炳祚, 羅州, 省齋, 광주시 남구 백운 1동 409 대흥사직 스카이 101동 302호, T. 062-571-1855, 011-636-5299
 - 金容河, 蔚山, 광주시 남구 진월동 대주 아파트 106-405 T. 062-530-3840, 016-612-2103
 - 高永斗, 長興, 三勉, 庚午, 광주시 남구 이장동 310, T. 062-674-0007, 011-601-0770
 - 金相煥, 蔚山, 광주시 남구 송하동 금호 APT 103-1708, T. 062-676-3881, 016-608-8183
 - 金沂洙, 蔚山, 호정, 광주시 남구 방림동 삼일 아파트 11동-303호
 - 宋炫珠, 新平, 雨山, 광주시 남구 구동 65, T. 062-652-5781, 011-416-5781
 - 河應善, 晉州, 松岩, 광주시 남구 월산 5동 1018-2, T. 062-364-4262, 011-279-6441
 - 金梓洙, 蔚山, 광주시 남구 주월 1동 1206-3(교수), T. 062-673-6395, 016-705-6395
 - 李潑, 星州, 石泉, 광주시 남구 봉선동 1007-4, T. 062-671-2677
 - 梁鎭禹, 濟州, 仁谷, 광주시 남구 서일동 253-20, T. 062-672-1518

◎ 광주(북구)

- 羅俊洙, 羅州, 石亭, 광주시 북구 문흥동 920 대주 아파트 205-1501 T. 062-262-6815, 011-9667-6815
 - 李洪柱, 全州, 顧菴,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아파트 31-405 T. 062- 529-1314, 018-602-4773
 - 鄭安鎭, 晉州, 湖堂, 광주시 북구 용봉동 모아미래도 102-103, T. 062-512- 2996
 - 朴東圭, 密陽, 松圃, 광주시 북구 중흥 1동 746-16, T. 062-523-7731
 - 金熙洙, 蔚山, 淸蔭, 광주시 북구 운암동 418-56, T. 062-512-0222
 - 柳漢相, 文化, 東江, 광주시 북구 우산동 559-74, T. 062-529-1197
 - 金鎭云, 蔚山, 木亭,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우미 1차 아파트 101-803 T. 062-521-8568, 019-628-8568
 - 朴鎭龍, 順天, 素田, 광주시 북구 각하동 471 금호타운 12-903, T. 062-672-7009, 016-642-9575
 - 金鏞植, 光山, 春溪, 광주시 북구 중흥동 1동 687-11, T. 062-512-6372
 - 金鍾云, 蔚山, 海岩, 광주시 북구 우산동 191-4, T. 062-261-7676, 011-602-2091
 - 金榛洙, 蔚山, 광주시 북구 삼각동 507-5, 016-603-2939
 - 金文珍, 蔚山, 南松, 광주시 북구 신안동 482-29, T. 062-528-7001, 521-2228
 - 金官中, 蔚山, 광주시 북구 풍향동 23-93, 금성맨션 703, 011-606-9699,
 - 金昌洙, 蔚山, 峴松, 광주시 북구 운암동 동일 APT 1805호 T. 062- 521-0371, 019-616-0372
 - 金鎭午, 蔚山, 星谷, 광주시 북구 운암동 삼호A 1동 204호, T. 062-524-6379
 - 金寅洙, 蔚山,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 APT 39-201, T. 062-524-9766, 016-779-9766
 - 沈愚慶, 靑松, 東谷, 광주시 북구 우산동 5-9, T. 062-261-8933, 011-624-8932
 - 柳淇南, 高興, 修巖, 광주시 북구 문흥동 743-11, T. 062-262-4150, 011-9766-4150
 - 金相煥, 蔚山, 鮮山, 광주시 북구 운암동
- 奇共度, 幸州, 養正, 광주시 북구 중흥동 711-3
 - 奇雲燮, 幸州, 惺菴, 광주시 북구 각하동 471 금호 3-606 T. 062-263-8054, 016-686-8054
 - 金炳大, 蔚山, 芝村, 광주시 북구 용봉동 973-1 삼성아파트 6-1702, T. 062-574-4928
 - 愼日範, 居昌, 松坡, 광주시 북구 풍향동 362-1(영암영보) T. 062-521-6126
 - 曹龍根, 昌寧, 草菴, 광주시 북구 운암동 262-4, T. 062-525-2999

운암APT 90-202

T. 062-521-2702, 019-345-2702

- 孔炳哲, 曲阜, 林泉, 광주시 북구 중흥동 642-2, T. 062-522-5100, 011-624-0030
- 徐明源, 達成, 淸灘, 광주시 북구 용봉동 1197-2, T. 062-232-1153, 512-2914
- 朴炯浩, 珍原, 竹巖, 광주시 북구 중흥동 658-9, T. 062-521-6969, 512-5382
- 金在俊, 蔚山, 淸軒, 광주시 북구 운암동 남일맨션 205호
T. 062-523-5286, 016-752-5286
- 金容大, 蔚山, 德川, 광주시 북구 신안동 238-39, T. 062-512-3349, 016-612-3349
- 金炳琓, 蔚山, 隱松, 광주시 북구 운암동 92-3, T. 062-529-7629, 019-9166-6345
- 金乙洙, 蔚山, 遜雲, 광주시 북구 두암 2동 600-3, T. 062-265-3650, 011-620-0900
- 金京洙, 蔚山, 광주시 북구 운암 2동 495-23, T. 062-523-2963, 016-602-2963
- 金鍾桓, 蔚山, 丹軒, 광주시 북구 임동 92-123, T. 062-512-3003, 016-603-0070
- 金治中, 蔚山, 月江,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아파트 91-1102, T. 062-523-2163
- 朴鍾達, 忠州, 松石, 광주시 북구 우산동 631-1현대아파트 105-403 T. 062-262-1779
- 閔京鎬, 驪興, 龍池, 광주시 동구 계림동 금호 2차 303-404, T. 062-527-2356
- 梁吉鎬, 濟州, 광주시 북구 일곡동 진로아파트 101-302, T. 062-672-2646, 011-603-8984
- 梁홍일, 濟州, 광주시 북구 문흥동 상록아파트 107-808
T. 062-251-1183, 011-612-5183
- 梁太鎬, 濟州, 광주시 북구 풍향동 551 송광맨션 204호, T. 062-521-8263
- 金靈洙, 蔚山, 광주시 북구 매곡동 83-1 금호타운 105-706, T. 061-393-2874, 019-373-8235
- 宋曙鎭, 洪州, 性齋, 광주시 북구 운암동 1114, T. 062-513-3961, 011-649-0134
- 柳鎭圭, 文化, 修雲, 광주시 북구 각하동 금호 아파트 8-903호, T. 062-361-4580, 017-615-8298

- 金宅洙, 蔚山, 嘉山, 광주시 북구 운암동 441-9, T. 062-523-7992, 011-636-7992
- 羅昌淳, 錦城, 撫山,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우미A 102동 505호, T. 062-672-7008, 062-527-0461
- 金正洙, 蔚山, 西雲,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국APT 105-804, T. 062-525-7385
- 金鍾得, 金海, 聖下, 광주시 북구 오치동 972-1 양지APT 3-102, T. 062-262-7868
- 許利鍾, 泰仁, 尙山, 광주시 북구 우산동 180-26, T. 062-261-5300

◎ 광주(광산구)

- 李官九, 全州, 南谷,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782, T. 062-952-8062
- 金永穆, 蔚山, 小軒,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주공아파트 505-1904, T. 062-956-0138
- 宋炳大, 礪山, 栢軒, 광주시 광산구 선동 513, T. 062-943-6581
- 金商順, 慶州, 復初, 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 631-3, T. 062-944-2394
- 李宰喆, 全州, 道隱, 광주시 광산구 명도동 279, T. 062-943-7517, 019-625-7517
- 曹瑄培, 昌寧, 惺軒, 광주시 광산구 북산동 421-1, T. 062-943-9898
- 朴溱夏, 密陽, 松軒,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839-3, T. 062-971-5705, 017-605-0578
- 梁哲承, 濟州, 松齋,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536-9 보라 아파트 1006, T. 062-941-9805
- 奇世潭, 幸州, 東隱, 광주시 광산구 신용동 317, T. 062-952-8011, 011-618-8014
- 李漢秀, 全義, 義松,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 320-1, T. 062-062-952-8873, 011-9613-9496
- 宋榮起, 光州, 廣山, 廣山, 광주시 광산구 송정 1동 557-1

◎ 海外

- 金炳均, 蔚山, 8226 Bahia BIna CT
Jacksonville FL32256 001-904642-8949

…特別會費 誠金內譯…

〈姓名, 雅號, 住所, 金額〉

1. 高洪錫 琴軒	경기남양주시	五만원	23. 金相憲 德齋	光州	壹拾만원
2. 邊溫葉 元谷	서울시논현동	壹拾만원	24. 張斗錫 海觀	光州	五만원
3. 金鎭雄 晚巖	부산다대동	五拾만원	25. 金容淑 素巖	光州	參拾만원
4. 金相燁	서울장안동	五만원	26. 高永斗 三勉	光州	壹百萬원
5. 高亨坤 院長	서울	貳拾만원	27. 梁在斗 石晶	光州	五만원
6. 李夏永 紹强	全州市	壹拾만원	28. 金炳大 芝村	光州	五만원
7. 林東翼 雲湖	全州市	五만원	29. 柳漢相 東江	光州	五만원
8. 金鍾夔 中軒	全州市	五만원	30. 朴鍾達 松石	光州	壹拾만원
9. 金炳桐 仁堂	益山市	參拾만원	31. 柳鎭圭 修雲	光州	五만원
10. 金炳權 光彬	全州市	壹拾만원	32. 金宅珠 嘉山	光州	參拾만원
11. 權熙文 澹軒	全北光水郡	五만원	33. 金相德 德峯	光州	五만원
12. 安泰錫	全州市	五만원	34. 宋河潤 曉江	光州	壹拾만원
13. 李泳福 雲亭	全南和順	壹拾만원	35. 金炳槿 仁松	光州	壹拾만원
14. 梁亨根 春坡	全南潭陽	五만원	36. 羅季柱 安石	光州	壹拾만원
15. 朴文鎬 友堂	全南寶城	六만원	37. 윤미숙 민족문화추진회	서울	壹拾만원
16. 金相杓 加平	全南長城	壹拾만원	38. 김옥경 민족문화추진회	서울	壹拾만원
17. 金麟奎 栢堂	全南長城	壹拾만원	39. 강민정 민족문화추진회	서울	壹拾만원
18. 金炳勳 欽齋	全南長城	參拾만원	40. 허남열 민족문화추진회	서울	壹拾만원
19. 李相鏞 碧松	全南長城	五만원	41. 진 현 민족문화추진회	서울	壹拾만원
20. 金道中 中山	長城郡	參拾만원	42. 김진옥 민족문화추진회	서울	壹拾만원
21. 金泳豐 白松	全南長城	壹拾만원	43. 金在億 三養社	서울	貳拾만원
22. 安晋吾 次山	光州	壹拾만원	(以上接受順)		

알림

1. 회칙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02년 12월 23일(월) 10:30
- 장소 : 광주향교 유림회관 (광주시 남구 구동 22-3)
- 회의목적사항 : 2002년도 결산보고, 2003년도 사업계획의결, 2003도 수지예산서 의결
- 기타 교양강좌 실시
 - 주 제 : 河西先生の 선비 精神
 - 발표자 : 全州大 吳鍾逸 教授

2. 원고 모집안내

- 하서선생의 遺文 遺詩를 비롯하여 학문과 사상에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함.
- 보낼 곳 : 광주시 동구 대의동 57-5 3층 대동문화 내 필암서원산양회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되 보내신 분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3. 회비 입금 계좌 안내

- 사정상 회의에 나오시지 못한 회원께서는 회비를 다음계좌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 농협 645014-56-015348 (예금주: 필암서원 산양회 김병훈)

4. 입회 절차 안내 등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또는 강회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2001년 발기인으로 참여하신 분은 별도의 절차없이 입회비 30,000원을 계좌 입금하시면 됩니다.
-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회원께서는 총무에게 통보하여 주십시오.
 - T. 016-622-5577

필암서원 산양회 회장



發

展

山仰會報 창간을 祝賀드립니다

蔚山金氏 光州宗親會

회	장	金鎮云
부	회	장
부	회	장
총	무	金鎮午
감	사	金吉洙
감	사	金勝圭

서울地域 蔚山金氏 宗親會

會長 金星洙 (高麗大學教授)
 事務局長 金相老
 事務局 : 서울 西大門區 忠正路3街 139
 番地 東亞日報社 3층
 전화번호 : 02)362-9555, 9650番

文正親睦會

會	長	金宅洙
副	會	長
總	務	金相敦
監	事	金炳郁

밀 등 회

회	장	김재수
부	회장	김을수
총	무	김상기

蔚山金氏 炳行會

會長	金 英
總務	金勝圭

長城鄉校

典校 奇梡舒